

복(伏)경기 속사정을 알아봅시다

◎ 최근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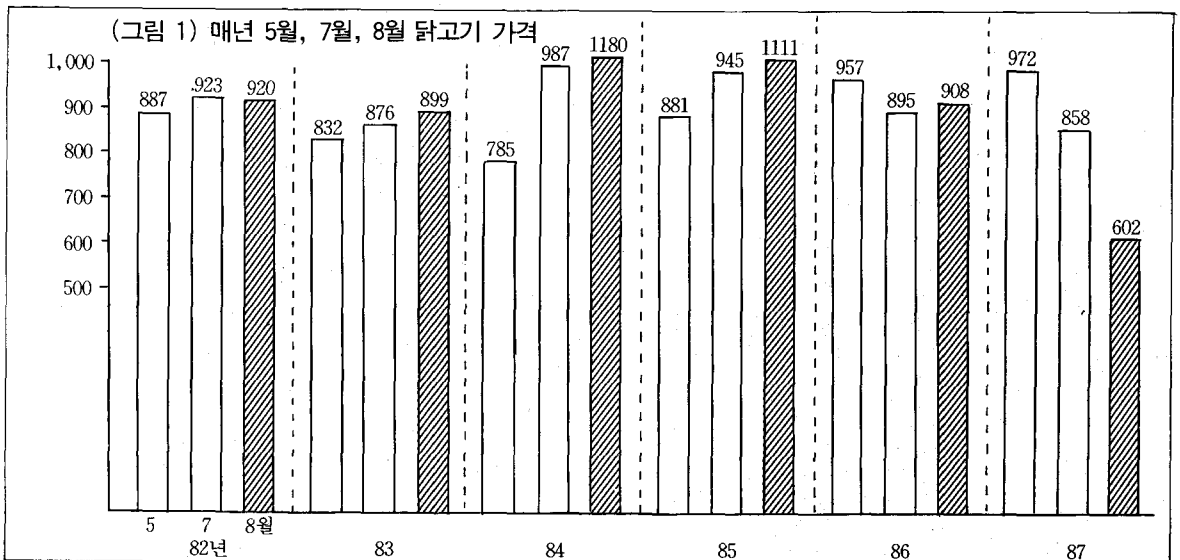
복경기란 육계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육계소비 성수기라고 말할 수 있다. 주로 7월 15일을 전후하여 초복이 시작되는데 이 경기를 겨냥한 많은 생산자들이 입추에 대한 관심도 대단한 것 만큼은 사실이다.

지금도 웬만한 육계생산자라면 84년도에 형성되었던 복중 육계가격의 매력(?)을 잊을 수 없어 입추에 대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다. 사실 육계산업은 변수가 많아 경기여하에 따라 작가는 몇백만원에서 크기는 몇천만원까지를 불과 40여일 동안에 결판을 내게되는 경향이 높아 「눈치사업」, 「한

탕사업」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사업의 역사가 오래되면 될수록 복경기를 보는 눈도 다양해져 점차 정확한 제반여건의 분석에 따라 생산자들의 무분별한 특수(特需) 기대심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 한가지 예로 86년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육계가격은 비교적 생산비선 이하에서 맴돌거나, 낮았기 때문에 복병아리 입식열기가 낮아 그런데로 복경기는 문제 없이 넘어간 형상이지만, 87년의 경우에는 1월부터 육계값이 대단히 높아(서울지역 하이 1,002원) 5월까지 생산비선 이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복경기는 물론 그 이후 경기까지도 저조한 양상을 보았을 때 복병아리가



입추되는 5월말을 전후한 육계가격이 커다란 입추열기의 결정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육계 및 종계 사육수(3월)

(단위 : 마리)

	86년	87년
종 계	2,503,911	2,803,240
육 계	17,496,798	20,029,835

자료 : 농림수산부

◎ 금년 육계산업 여건 분석

87년 후반기부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육계산업은 단순히 소비감소 또는 생산과잉으로만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생산을 대폭 감산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행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보다 금일 육계산업의 여건은 매우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년중 가격의 진폭이 너무 커서 그것도 호경기는 불과 3~4개월이고 나머지는 불황속에서 허덕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언제 가격이 팬참을 것이라는 소문만 돌아도 너도나도 입추열기가 팽배해지게 마련인데 이러한 단점을 이용하여 사료나 부화장에서 근거도 없는 입추론을 제시하여 생산을 과잉시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87년에 육계생산자들은 쓰라린 경험을 했으리라고 본다.

다음은 금년 복경기를 대비하여 현재 진행되어가고 있는 분위기를 분석해 보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최근 각종 자료분석에 의하면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약 25~30%가 증산될 외형적인 능력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우선 천호부회장 김호섭이사의 복경기전망을 들어보자.

“원래 어떤 경기가든 전망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흐름을 잘알면 거부가 안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전망이라고 하지말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경영의 일부를 소개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표 2〉 병아리 필요량과 생산잠재량 비교

(88년도)

월별	(추정)필요수	생산잠재수	비 고
1	14,413,000	16,177,300	생산조절로 균형유지
2	17,870,000	18,296,300	
3	19,993,000	21,434,000	환우로 생산조절
4	21,913,000	23,858,600	“
5	25,350,000	24,374,800	
6	26,160,000	23,902,000	환우계로 생산 잠재량 증가예상
7	22,540,000	21,072,800	
8	22,419,000	19,379,800	생산연장으로 생산 잠재량 증가예상

(표 2)에서 보듯이 금년 병아리추정치는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다만 5월이나 6월에는 3월부터 시작된 환우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생각으로는 1,500,000수가 되지 않겠나 합니다. 작년의 경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사실 육계업자들은 복병아리 입추시기의 닭값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700원선에도 도달치 못하는 실정인데 5월말까지 가격은 부진하리라고 보아 입추열기는 크지 않겠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병아리값도 좋지않아 경영상 대형부화장에서 종계 조기도태가 이루어져 과거 수준에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86년 11월부터 닭값이 800원대를 넘어 유지되었기 때문에 종계도태가 되지 않았고 병아리값이 좋다 못해 품귀현상까지 갔으니 생산력을 최대한 늘려나와 입추열기고조에 맞아들여가서 87년 8월이후부터 지나친 생산과잉으로 불황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볼때 금년 복경기에 앞서 복병아리가격은 입추열기가 저조할 것으로 보여 높은 가격은 기대치 못한다고 봐야겠읍니다. 그러면서 예년의 수준으로 가지 않

겠나 생각합니다. 생산자들도 주변의 소문이나 닭값에 따라 일시적인 판단으로 입추를 하기보다 출하증량에 따라 알맞은 품종을 선택하여 년중 육계경기가 안정된 가운데 생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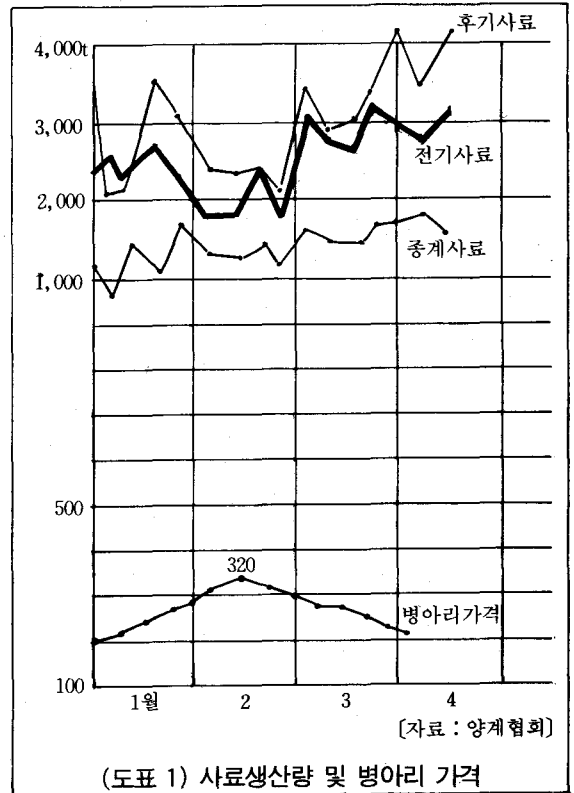
연중소비가 가장 높은 것이 복경인 것 만큼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저마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생산을 늘려간다면 늘린만큼 소비자가 소비를 시켜준다는 보장은 없다. 어쨌든 닭을 키우는 생산자와, 닭을 키우는데 필요한 자제를 공급하는 연관산업체와, 소비자 3분야가 저마다 실리위주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생산자인 조정래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가 판단컨데 금년 닭값 시세는 후반기를 넘어서야 겨우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내 배합사료물량이 늘어난데다 각 사료공장의 생산시설도 약 25% 정도가 증설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부화장의 종계물량도 종계사료로 추정해 볼때 30~40%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그만큼 늘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87년 한해동안 육계생산기반이 30%가 늘어나 결국 전반적으로 육계산업이 30%정도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증가 추세는 겨우 10%에서 약간 웃돌며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잉으로 늘 만성적인 불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5월 닭값이 800~900전대를 유지하기 어려워 복경기열기가 부진하여 오히려 복경기 자체는 다소 안정세에서 이루어지리라는 생각도 하지만 과연 입추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렸지만서도 앞서 밝힌 바대로 무려 30%라는 생산증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호경기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3월 16일 이후 병아리가격이 200원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란이 전량 부화에 들어가지 않고 4월 20일까지 밀려 복경기에 대비하여 일시에 밀려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처럼 병아리가 품귀현상이 되어 값이 더욱 올라가는 일은 적어질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즉 생산자가 입추를 원한다면 사료나 병아리 공급은 언제나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문제의 관건은 생산자가 얼마만큼 입추열기를 갖느냐에 따라 복경기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마다 생산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신중한 입추가 요망될 따름이기 때문에 복경기 예측은 어렵습니다.”



◎ 고려해야 할 사항

어쨌든 5월 15일부터 6월초반까지 입추되는 상황에 따라 복경기는 결정되었지만, 날씨나 사회여건에 따라서도 상당한 변수가 있다.

금년 배합사료쿼터량도 950만톤으로 작년보다 증가되었으며 현재도 종계사료의 경우 3월말까지의 생산량이 늘어난 것만 보아도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부화장의 부화능력도 대형화 추세로 접어들어 충분한 종계확보와 아울러 수요자가 원하는 양의 병아리 공급이 가능케 되었다. 이에 반해서 소비는 생산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생산자들은 무리한 입추방식을 버리고 성적이 우수한 병아리 선택에 역점을 두어 연중 손해보는 일이 없이 육계사업을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항상 각종 정보에 신경을 쓰고 독자적인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소신있는 입추로 과거처럼 「한탕주의」를 노리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양계** <用>